





# 제2의 희천정신을 창조할 기세로 비약의 열풍을 일으킨다

##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대담한 작전

청천강에 계단식으로 밀려서는 발전소건설장마다에서 《마식령속도》창조열풍, 제2의 희천정신창조열풍이 세차게 나뒹개지고 있다.

지난 25일 5호발전소건설장에서 청천강의 흐름을 둘러싼 방대한 1차가물막이공사가 성과적으로 계속되며 이어 26일에는 6호발전소건설장에서 우안연계건설을 위한 1차가물막이공사를 형성하였다.

다른 러단들의 전투장에서도 발전기실과 취수로암반굴착설비가 나날이 오르고 언제, 수문기동, 물고기굴크리드라이프이 본격화되는 속에 이제는 각 발전소들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런가하면 당의 은성속에 마련된 대형화물자동차들의 통행이 날이 갈수록 높아 올리고 언제 및 탐식기중기로, 선별장건설이 공세적으로, 밀집적으로 힘있게 추진되어 발전소건설의 기계화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전망이 열리고 있다.

전당, 전국각적인 힘을 집중하여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다그치며 대담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성의껏 마련한 설비와 자재, 로동보조자와 후방물자들을 안고 이곳 전투장을 찾아오는 성, 중앙기관들과 각도, 시, 군인민들과 근로자들의 지원열기도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공격적인 합성드높은 여기는 희천6호발전소건설장이다.

지금 우리는 물고기굴크리드라이프가 동시에 벌어지고있는 평안북도전당의 전투장에서 이 소식을 전한다.

주요구간의 1선가물막이공사를 한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불이 번쩍 나게 해제된 기세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양양된 열의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외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뿔뿔이어나 불뿔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라 해볼라! 이것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6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가까운 몇해안에 끝내기 위하여 취해주시는 중대한 조치들과 크나큰 사명을 건설에 참가한 전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기적창조의 한길로 출발할수 있게 하는 무한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본격적인 공사계획에 들어선 요즘 양양된 대중의 열의에 맞게 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자신들의 어깨에 실린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며 한사람같이 분발하고있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책임자 심상모, 참모장 권영태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당일에 결의다짐대로 올해 높이 세운 공시목표를 결사관철하기 위한 대담하고 힘찬 작전을 펼치고있다.

시공분과 성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할피해를 가진 모든 발전소건설장들의 실패를 해부학적으로 료해한대 기조하여 올해 중에 도달하여야 할 대상별혼서

준다.

구장군대와 파산군대대가 맡은 2대의 혼합기들이 만부하의 통용을 올리며 힘차게 돌아간다.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세베트와 모래, 자갈을 혼합기에 비례있게 투입한 돌격대원들이 물량을 알맞추어 조절한다. 잠간사이에서 혼합기마다에서 진회색의 잘 뒤섞여진 물탕이 쏟아져내린다.

길게 뻗어내린 철관의 광열에

## 현지보도 불이 번쩍 단숨에!

평안북도려단에서

서 림명철, 한순미동무들이 삼날을 쟁싸게 놀리며 콘크리트혼합물에 속도를 더해준다.

수문기동의 기초콘크리트기전투장에서 통천군대와 철산군대의 전투원들이 일손마다에 불꽃을 날리며 회틀안에 혼합물을 구식구식 채우고 골고루 퍼놓는다.

진동다짐기를 틀어린 김윤철, 정광일동무들의 구리빛팔뚝에 불끈불끈 힘줄이 튀어나올 때마다 혼합물속에서 거품이 솟고 물기가 내뿜는다. 설비편리, 기술편리를 주인답게, 잔지켜 하며 매일 파제를 두름, 세류씩 해제야 직성이 풀린다는 이들이다.

맛은전에서는 물고기굴크리드 굴착전투가 한창이다. 일별게 획을 1.2배이상으로 넘쳐

및 암반굴착량과 콘크리트타입량을 명백히 제시하였다. 특히 유리한 공사계획에 콘크리트타입량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을 기본작업과제로 정하고 모든 러단들에서 발전기실의 하부구조 콘크리트치기와 연제의 절반부분에 대한 기초콘크리트치기를 끝내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한편 모든 건설장마다에서 연제건설을 위한 가물막이에 력량을 집중하여 빠른 시일안에 계속함으로써 작업전선을 부단히 확대해나가고자 하고있다.

집게는 점령할수 없는 아름다운 공사장이다.

그러나 발전소건설작업의 진행한 올해의 첫 전투성과가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청천강을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진가! 현장지휘부일군들은 누구보다도 깊이 자각하고있다.

자신들부터가 결사관철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애국의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마식령속도》를 창조해나가는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뛰고 또 뛰며 혁명적으로 실천해나가고 있다.

려단별사회주의경쟁의 도수를 더욱 높이면서 앞선 단위들의 모범을 적극 앞받쳐나오

고있다. 지난 9월 11일과 12일에도 황해남도려단과 금야강수력발전소건설사업소가 맡은 5호, 4호발전소건설장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각 러단의 지휘관들이 연제가물막이공사와 기계설비의 효과적리용에서 좋은 경험들을 본받도록 하였다. 한편 자체의 수리기지를 강화하여 자동차가동률을 높이고있는 자강도려단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운수기재들의 실통용을 높이는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중양지휘부와 해당 부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발전소건설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련원기계련합기업소, 풍성기계련합기업소의 기능공들로 조직된 수리부사대 성원들의 책임감과 열의를 높이여 러단들에서 굴착기와 압축기의 가동률을 끌어올리고있다.

그러나 발전소건설장들에 연제기중기와 탐식기중기들을 설치하기 위한 부단과 조직사업을 진행한대 이어 하루빨리 계속하기 위해 아글라글 노력하고있다. 지난 9월 중순에는 현장지휘부에서 힘을 집중하여 기중기와 반팔뚝차를 보장하고 청천강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닦으며 어느 한 단위에 사정없이 지원한 탐식기중

수행하는 자랑을 펼치고있는 정주시대대의 돌격대원들이 화선에 나선 병사마냥 착암설비를 틀어쥐고 진격의 물구나무를 열어나간다. 혁신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는 황산군대대의 구성시대대, 동명군대대의 전투원들도 맡은 구간의 기초굴착작업을 외닥다 다그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대적, 대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난 9월 25일, 밤낮이 따로 없이 근 한달째 총돌격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희천5호발전소건설장의 열기는 최고조에 이르렀었다.

발전소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주기에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 새로운 1선가물막이공사가 마야흐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있었던것이다.

기운차게 용을 쓰며 바가지들 들어올리는 굴착기와 적체함마다에 토량을 가득 싣고 연방 밀어닥치는 대형화물자동차들, 장사신을 치고 구부로 내달리는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그야말로 온 건설장이 불도가나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졌었다.

13시 15분, 마지막 남은 1m구간에 폭포처럼 토량이 쏟아져내리니 광역에서 마주 향해오던 가물막이띠가 마침내 하나로 이어졌다.

《만세, 만세...》

수수천년 흐르던 청천강의 흐름을 휘어잡고 광만하는 대자연의 길들인 정복자들의 우렁찬 환호소리가 수려한 산발에 깔렸이 메아리쳐갔다.

발전소건설에서 또 한번 장훈을 부르게 된 환희로운 이 시각, 혁신의 피와 땀으로 쌓아놓은 자기들의 창조물을 긍지롭게 바라보는 황해남도려단의 전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눈앞에 지나온 결사전의 25일간이 주

기물 희천9호발전소까지 성과적으로 수송할수 있게 하였다.

현장지휘부의 분과장이상 모든 일군들과 설계, 시공성원들이 한데 련단적 말고 아래에 내려가 실속있는 공사지도를 짜고돌고있다. 11호, 8호발전소건설장에 내려간 분과장들인 윤철호, 장신남동무들은 부촉되는 공사용위틀과 목재, 전동기부속품들을 제때에 해결해주어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시공분과의 전동차, 문물현동무들은 높은 책임성과 이신착적으로 9호, 5호발전소건설장의 여러 대상에 대한 시공지도를 앞세움으로써 이 단위들이 혁신의 앞장에 서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중요자재보장을 맡은 리상호, 리철진동무들도 자기들이 맡은것만큼 공사속도가 높아진다는 자각을 안고 하루에도 수백리길을 오가며 애국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올해전투목표정착을 위한 열쇠는 우리들의 손에 쥐여져있다. 바로 이런 높은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오늘날도 대담한 헌신과 혁명적인 실천으로 승리의 돌파구를 앞장서서 열어나가고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속에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는 날이 갈수록 더 높은 공사실적이 기록되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 위훈창조의 앞장에 우리가 서자

평양시려단의 돌격대원들이 발전소건설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치고 있다.

이들은 9월초부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6개의 연제수문기동에 대한 기초콘크리트 타입을 1주일 남짓한 기간에 해제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하루 최고 400m의 타입실적을 기록하며 지난 25일까지 시공이 복잡한 말안장형인 5개의 무덤이연제공크리트타입을 완전히 계속하였다.

지금은 취수로암반굴착전투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며 수수천년 문혀있던 천연암반들이 드러나고 한쪽에서는 여러개의 수문기동이 우뚝우뚝 솟아나고 있다.

위대 한 명도 자기경쟁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성대국의 역센 뿌리가 되려는 애국헌신의 정신을 지니고 그 어떤 난관도 달게 이겨내 오늘이 1분 1초를 빼 놓지 마라.》

백중원, 안성일동무를 비롯한 려단지휘관들은 연제수문과 발전기실기조, 취수로바닥콘크리

트치기를 올해중에 불이 번쩍 나게 해제할 높은 목표를 내걸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집중적으로 하고있다. 작업구역이 넓어 지는데 맞게 력량편성과 배치를 합리적으로 기동성있게 하고 모든 대대들에서 전격전, 립체전, 섬멸전을 드세차게 벌려 공사실적을 부쩍 올리도록 하고있다.

연제수문의 콘크리트타입을 맡은 돌격대원들이 진격속도를 높이고있다.

풍성구역, 력포구역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을 애국의 마음안고 수백m의 무덤이연제타입을 단 며칠사이 에 제일먼저 끝내고 지금 수문기동콘크리트타입을 다그치고 있다. 그들은 새롭게 창안한 원형식철근회틀을 리용하는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받아들여 공사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여나가고있다.

콘크리트타입속도가 빨라지는데 맞게 혼합물생산과 보장을 맡은 선교구역, 강동군대대의 돌격대원들도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이들은 혼합기들의 만부하를 보장하고 모래와 자갈, 세멘트의 배합비율을 엄격히 지키는 한편 혼합물운반을 적극 따라세우고 있다.

철근구공과 휘틀제작을 맡은 량랑구역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절단기를 비롯한 설비가동률을 높여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운수소대의 운전자들도 차등정비를 잘하고 실통용을 높이 세멘트와 골재운반에서 편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

고있다.

취수로와 발전기실암반굴착 전투장에서도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만경대구역대대의 오명일, 로국철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원들은 침착하게 만부하를 걸어 하루 최고 10회의 발파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중구역, 선교구역대대를 비롯한 여러 대대의 돌격대원들은 발파가 끝나기 바쁘게 버럭거리 작업에 달려들어 매일 파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려단에서는 공사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준비사업도 동시에 힘있게 내밀고있다.

선별장공사를 맡은 만경대구역, 량랑구역대대의 간성대원은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선별기본체를 제작완성하고 필요한 설비들을 갖춘채 이어 지금을 선별장의 지대정리를 다그치고있다.

려단지휘관들의 예견성있는 작전밑에 여러대의 스키프가 마련되어 연제공사장에 설치됨으로써 수문기동이 높아지는데 따라 콘크리트혼합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공부소대 돌격대원들은 탐식기중기조직을 하루빨리 끌어내어 전반적인 공사속도를 높여내며 기여할 마음을 안고 지금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려단에서는 작업구역이 넓어지는데 맞게 건설작업의 전문화방향에서 대대들을 고차수적 작업조직을 함으로써 공사속도와 질보장에 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출 철 호

## 기적을 안아온 25일간의 낮과 밤

### 황해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마동처럼 출렁였다.

청천강의 흐름을 둘러싸우기 위한 공사량은 참으로 방대하였다. 우회수로를 파고 가물막이 띠를 새로 쌓으면 토랑만 해도 대형화물자동차로 계산하여 무려 1만 1000차량이상이나 처리하여야 하였다. 특히 건설장의 지형상특성과 몇달째 쏟아져내린 무더기비의 영향으로 굴착기와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설비들을 제대로 가동시킬수 없는 것이 제일 큰 난관제로 나왔다.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사물처럼 강물로 하여 기동조건이 불리한데 맞게 우회수로공사장에 천막을 치고 속속하면서 굴착전투를 벌리고있다.

도담사관리국대대와 신천군대대의 돌격대원들이 질풍과 맞먹이로도 성취하지 않아 자갈매대를 더 지고 매일 왕복 70여리의 구간을 달리고 또 달리고있다. 강령군대대와 용진군대대의 전투원들이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일별굴착과제를 1.2배이상으로 해제할 때 봉천군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우회수로벽의 석착작업을 동시에 내밀면서 공사의 질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로공사장에 굴착기들을 성과적으로 기동시키자고 문턱설비들을 단가동시켜 가물막이성 토질적용을 부쩍 올리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특히 신천군대대의 림호철동무를 비롯하여 희천발전소 1단 계간설비부터 혁신자의 영예를 떨치고있는 돌격대원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전투장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끼었다.

하루빨리 발전소를 밀려세워 어머니당에 승리의 보고를 드리



황해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25일간의 밤과 낮을 힘차게 수행하고 있다.

기적을 안아온 25일간의 낮과 밤

황해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로공사장에 굴착기들을 성과적으로 기동시키자고 문턱설비들을 단가동시켜 가물막이성 토질적용을 부쩍 올리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특히 신천군대대의 림호철동무를 비롯하여 희천발전소 1단 계간설비부터 혁신자의 영예를 떨치고있는 돌격대원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전투장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끼었다.

하루빨리 발전소를 밀려세워 어머니당에 승리의 보고를 드리

황해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25일간의 밤과 낮을 힘차게 수행하고 있다.

## 조선인민군창작사와 만수대창작사 일군들의

### 축구경기가 있었다

랴원 선수들은 당이 제시한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방침을 받들고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서 현마하여온 축구기술과 완강한 투지로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 보였다.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는 속에 전반전 26분경 만수대창작사의 14번선수가 강한 차넣기를 하였다.

문지기가 가까스로 쳐냈지만 돌입하

던 17번선수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날랜 동작으로 차넣기하여 득점하였다.

관람자들은 북을 치고 환호를 올리면서 선수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조선인민군창작사의 선수들은 방어를 강화하면서 잃은 점수를 회복하기 위해 역속속공으로 득점기회를 마련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랴원 선수들은

경기속도를 높이고 재치있는 패물기와 련락으로 상대방의 문전을 현수 위협하였다.

후반전 12분경 만수대창작사의 17번선수가 측면에서 길게 련락한 공을 11번선수가 단번차기로 성공시켰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분위기와 응원들이 더욱 고조되는 속에 선수들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 팀의 전술적의도에 맞게 경기를 박력

있게 운영하였다.

관람자들은 고상한 경기도덕풍성을 보여준 선수들한테는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경기에서는 만수대창작사 일군들이 2:0으로 이겼다.

한편 경기장에서는 조선인민군창작사와 만수대창작사 미술가들의 속사경기가 2:0으로 이겼다.

전체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대중체육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며 시대정신을 반영한 명작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갈 길에 넘쳐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사리원뜨락뜨르부속품공장에서

제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들은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긴장한 주강소설을 극력 절약하면서 부속품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였다.

주물제작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짧은 시간에 필요한 쇠를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개조한 유도로를 더욱 활성화하여 주물품생산을 늘이고 있다.

단조직장에서는 가열로들을 개조하여 종전보다 연료를 절반이상 절약하면서도 소재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하고있다.

혁신의 기상은 1, 2가공직장에서도 세차게 나뒹개고 있다.

직장들에서는 선반을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만부하를 걸어 소재들이 넘어오는폭작 가공해내고 있다.

이와 함께 로동자들의 기술능을 높여주기 위한 기술학습에 힘을 넣어 질풍은 뜨락뜨르부속품들을 생산해내게 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로동자들의 힘찬 투쟁에 발을 맞추어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 동천에 더 많은 투수품을

특파기자 김천일





